



미 증시, 기술적인 되돌림 속 연준발 불확실성으로 하락

미국 증시 리뷰

5 일(월) 미국 증시는 지난 주 고용보고서 서프라이즈를 소화하며 하락 출발한 이후, ISM 서비스업지수 호조 및 연준 금리인상 경로 불확실성 부각, 달러강세 및 미 국채금리 상승 전환 등으로 낙폭 확대하며 마감 (다우 -1.4%, S&P500 -1.79%, 나스닥 -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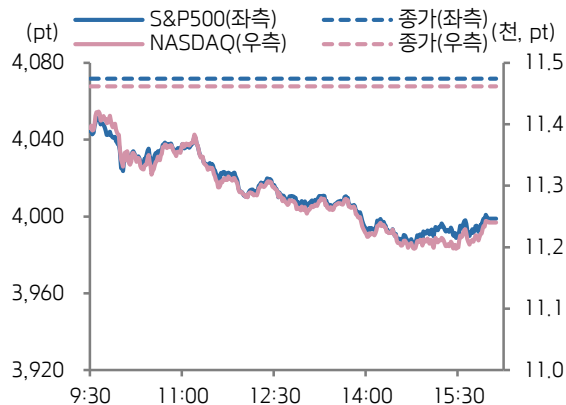
미국 11 월 ISM 서비스업 지수는 56.7(예상 53.5, 전월 54.4)로 예상치를 큰폭으로 상회. 생산지수는 전월 55.7 에서 64.7, 고용 지수 전월 49.1 에서 51.5 로 상승하는 등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으나, 신규 주문 지수 는 전월 56.4 에서 56.0 로 하락. 집계측은 예산안이 새로 집행되고 연휴 시즌이 시작되면서 기업 활동과 고용이 개선되었다고 언급.

한편, 미국 10 월 제조업 생산은 전월대비 1.0%(예상 0.7%, 전월 0.3%) 증가, 국방을 제외한 제조업 수주는 전월대비 0.9% 증가, 내구재주문은 1.1%(예상 1.0%, 전월 1.0%) 로 견조.

전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유틸리티(-0.6%), 헬스케어(-1%), 필수소비재(-1.2%) 업종의 낙폭이 가장 작았고, 경기소비재(-3%), 에너지(-2.9%), 금융(-2.5%) 업종의 낙폭이 가장 컸음. 중국 리오프닝 및 방역 정책 완화 기대감에 강세를 보인 중국 본토 및 홍콩 증시에 힘입어 달러/위안 7위안 하향 돌파 및 알리바바(0.51%), 핀뎬뎬(1.69%) 등 중국 ADR 기술주 대부분 강세. 반면 미 국채 금리 상승 부담으로 엔비디아(-1.58%), 마이크론(-1.17%), AMD(-1.81%), AMAT(-0.26%) 등 반도체 관련주들은 약세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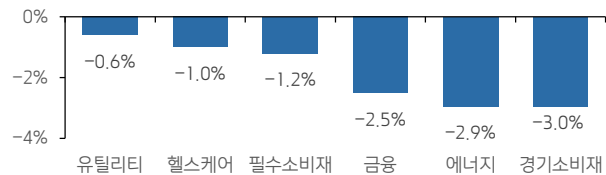
테슬라(-6.37%) 는 11 월 상하이 공장 출하량이 10 만대를 넘었다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중국 수요 감소로 인해 상하이 공장 12 월 모델 Y 생산량을 전월 대비 20%이상 줄일 계획이라는 보도에 급락. 이후 테슬라는 상하이 감산을 부인. 애플(-0.8%)은 WSJ 에서 공급업체들에게 인도와 베트남의 제품 조립 계획을 추진하도록 지시, 생산기지를 중국 밖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영향으로 하락. 폭스콘 11 월 매출이 10 월보다 29% 감소했으며, 중국 이외 지역에서 필요한 규모의 숙련된 인력을 모으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 제기.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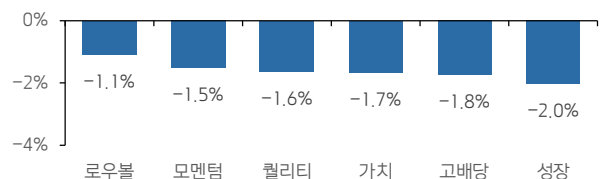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3,998.84	-1.79%	USD/KRW	1,292.60	-0.6%
NASDAQ	11,239.94	-1.93%	달러 지수	105.28	+0.71%
다우	33,947.10	-1.4%	EUR/USD	1.05	-0.01%
VIX	20.75	+8.87%	USD/CNH	6.97	+0%
러셀 2000	1,840.22	-2.78%	USD/JPY	136.70	-0.04%
필라. 반도체	2,738.05	-1.2%	채권시장		
다우 운송	14,048.18	-3.26%	국고채 3년	3.602	-1.3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539	-3.6bp
Eurostoxx50	3,956.53	-0.54%	미국 국채 2년	4.387	+11.6bp
MSCI 전세계 지수	633.54	-0.31%	미국 국채 10년	3.574	+8.7bp
MSCI DM 지수	2,733.03	-0.29%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973.85	-0.45%	WTI	77.39	-3.24%
MSCI 한국 ETF	58.06	-2.32%	금	1781.3	-1.5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2.32%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1.14%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1.34%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05.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3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코스피와 코스피의 기술적인 매도 물량 출회 여부 2. 화장품, 여행 등 중국 리오프닝 관련 국내 소비 테마주들의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 3. 장중 예정된 호주중앙은행(RBA)의 통화정책결과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현재 한국, 미국 등 주요국 증시는 지난 9 월말~10 월초 바닥 대비 평균적으로 10% 이상 빠른 속도로 반등함에 따라 단기 되돌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물론 연중 계단식 하락을 극심하게 겪어왔던 것에 대한 반작용을 감안하면 작금의 반등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은 사실. 하지만 약 2 개월 간에 걸친 반등 과정에서 신규 호재성 재료가 등장하지 않은 채, 기존 호재성 재료(속도조절,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등)를 빠르게 주가에 반영했다는 점이 단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12 월 5 일 증가 기준으로 지난 바닥 대비 주요지수들의 주가 상승률은 코스피 +13.3%, 코스닥 +12.8% / 다우 +18.4%, S&P500 +14.5%, 나스닥 +11.4%). 더 나아가, 다우를 제외한 S&P500(200 일선), 나스닥(120 일선), 코스피(200 일선), 코스닥(120 일선) 등 여타 한, 미 주요 지수들이 기술적인 저항선에 직면했다는 점도 시장참여자들이 하여금 방향성 베팅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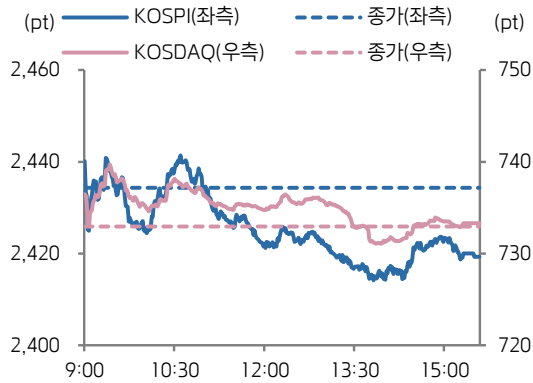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때 그때 발표되는 지표들의 성격이 동일함에도 시장은 포지션 청산 명분을 생성하면서 증시 변동성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일례로 지난 1 일 발표된 11 월 ISM 제조업 PMI 부진(49.0, 예상 49.8)은 미국의 침체 이슈를 자극하면서 해당일 증시 하락을 초래. 반면 5 일 발표된 11 월 ISM 서비스업 PMI 호조(56.5, 예상 53.3)는 연준의 긴축 속도조절 기대감을 약화시키면서 전일 증시 하락을 만들어낸 모습.

동시에 연준 위원들이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한 만큼, 당분간 연준의 생각과 정책 변화를 놓고 시장 참여자들간에 혼선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결국 현재의 변동성 장세가 진정되면서 방향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차주 예정된 11 월 미 CPI, 12 월 FOMC 를 소화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 따라서, 그 전까지는 경기 방어, 배당 등 저베타 종목들로 대응하거나 지수 방향성 베팅을 자제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 전략이 될 것으로 전망.

전일 국내 증시는 중국 리오프닝 호재에 따른 국내 관련주 강세에도, 지난 금요일 미국 고용 호조 부담, 외국인 순매도 전환 등으로 혼조세 마감(코스피 -0.6%, 코스닥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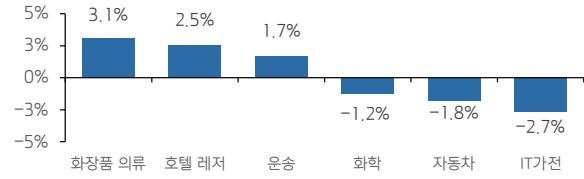
금일에도 기술적인 매도 물량 출현 속 미국 증시 급락, 원/달러 환율 상승(역외 +13 원)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업종 관점에서는 상해, 베이징 등 중국 주요도시 방역완화 소식이 국내 화장품, 여행 등 소비 테마주들에게 호재로 작용해왔던 만큼, 금일에도 중국 관련 뉴스플로우에 따라 주가 모멘텀이 추가로 이어질 수 있기는 함. 다만, 단기간에 주가가 폭등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Sell on news(혹은 차익실현)"로 인한 매도 물량 출회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적절. 또한 현시점은 여전히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구간인 만큼, 장중 예정된 호주 중앙은행(RBA)의 금리 결정에 따라 주식시장 포함 전반적인 국내 금융시장의 흐름이 상이해 질 것으로 예상.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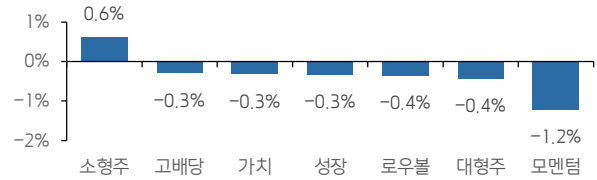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며,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